

**대만, 환경보호용 분해성 비닐소재 수요 증가  
PLA가격 전년 대비 20% 인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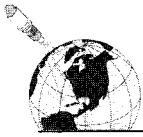
금년 1월부터 대만정부의 제2차 비닐봉투 사용제한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분해성 비닐소재의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

지난 2002년 7월부터 환경보호 차원에서 관청, 병원, 학교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됐던 제1차 비닐봉투 사용제한이 금년부터 식당, 대형매점, 편의점 등 대만 전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분해성 비닐봉투의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되기 시작했고, 보름만에 비닐소재 업체들의 주문량도 작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비닐소재 공급업체들은 정부의 비닐

제품 사용규제에 대비해 작년부터 환경보호용 분해성 비닐소재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당초 대만 정부의 비닐사용 규제범위가 전면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해성 비닐원자재 가격도 일반 비닐 소재보다 높아 비닐가공 업체들에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분해성 비닐소재(PLA: Poly Lactic Acid)를 도입하고 있는 대만의 偉盟사는 작년 7월부터 공공기관에 비닐봉투를 공급하던 제조업체에게 PLA를 한 달 평균 1백톤 가량 공급해 왔지만 금년에는 정부규제가 확대 시행된 지 한달도 되지않아 주문량이 이미 5백톤을 넘어섰으며 기타 비닐가공 업체들의 주문량도 크게 밀려 있다는 설명이다.

동 업체의 갑작스런 매출증대가 정부의 비닐사용 제한조치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밖에 PLA 공급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20% 이하된 것도 매출확대에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 업체에 따르면 향후 분해성 비닐소재 공급량이 연간 5만톤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현재의 절반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북미, 펄프가격하락세 진정 될 전망**  
조업단축 감행, 펄프시장 영향 미쳐

지난 1월, 북미 NBSK 가격이 구랍 12월에 US\$10/MT 하락한 US\$480/MT로 내려앉은 이후, 추가하락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북미의 펄프재고가 감소한 상태이므로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 목재 부족상황이 심각하고 캐나다에서는 미국에 관세를 27%나 내야한다.

이 때문에 캐나다 동부지역의 많은 제재소가 연말연시 휴일에 문을 닫아 펄프공장에 필요한 원재료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며 북미의 상당수의 펄프공장들도 1월달에 조업단축을 감행할 예정이어서 펄프시장에 심리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독일, 음료포장캔 재활용 혼란 속에 시행**  
소비자, 소매점 모두 '귀찮다' 불만

금년 1월1일부터 의무화된 독일의 음료수 포장캔 재활용이 혼란 속에 시작됐다.

음료수 포장용 캔과 일회용 유리병이 올해부

터 재활용 대상이 돼 수거될 경우 일정 금액의 돈을 돌려주는 제도가 본격화된 이래 독일 전역 소매점의 95%가 재활용 수거 대상 캔으로 포장된 음료수를 판매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물론 판매원들도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 혼란이 야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유력 경제일간지인 한델스블라트가 슈퍼체인 Plus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당수 소비자들이 재활용 대상인 음료 캔과 일회용 유리병을 수거, 리펀드 받는 대신 그대로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더욱이 각 점포가 캔 및 일회용 유리병 리펀드를 위한 자동판매기 등의 시스템을 갖추어 놓지 못해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독일 내 대부분의 소매점이 동 처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놓는 것을 금년 10월이나 돼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음료 캔 및 일회용 유리병 재활용 수거 리펀드와 관련, 일반 소매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동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재활용 수거 리펀드 대상임을 알리는 'Wertmark' 스티커를 일일이 나눠 줘야 하고 수거된 빈 깡통과 유리병을 처리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 역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귀찮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6캔 들이 사과주스가 예전에는 1.22유로 였으나 빈 캔 재활용 리펀드 방침에 의해 1개 캔당 25센트가 추가된 1.50유로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빈 캔을 수거, 리펀드 받으면 1.50유로를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직접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은 제품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고 느끼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식 영업이 시작된 지난 1월 2일 부터 독일내 각 소매점 계산대에서는 재활용 수거 리펀드 가격이 부가된 제품 가격 때문에 점원과 소비자 간 실랑이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있다.

**미국, EU 유전자변형식품 WTO 제소 방침  
유럽, 4년여간 작물 승인 유예**

미국이 유전자변형(GM)식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유럽연합(EU)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로버트 쉘릭 美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지난 9일 『유럽의 수입제한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전면 위배된다』며 『이 사안을 WTO측에 제소할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다.

쉘릭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GM식품 문제와 관련, 워싱턴 당국이 수년간의 망설임을 끝내고 공격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세계 최대 GM작물 생산국이며 유럽은 4년여 전부터 이 작물에 대한 승인을 유예해왔다.

쉘릭 대표는 『유럽의 반 과학적 결정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일부 유럽국가는 미국산 GM식품 원조를 거부하도록 아프리카를 충동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식량난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의 잠비아는 지난해 10월 미국산 구호식품에 GM작물이 포

함됐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대만, 일회용 용기·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민간운영 모든 시설 적용**

대만 환경당국은 지난달 1일 민간 유통시설 및 음식점에서 고객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7월 관공서·국영 기업·군대·학교·병원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용기 및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슈퍼마켓·백화점·편의점·패스트푸드점·레스토랑 등 민간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되며, 비닐봉투를 필요로 하는 고객은 돈을 내고 이를 구입해야 한다. 대만 정부는 플라스틱 용기, 비닐봉투 제조업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중국, 도레이새한 PET필름 반덤핑관세 면제  
지난 2000년 13~46% 부과 밝혀**

중국정부가 한국의 화학업체인 도레이새한(주)(대표이사 이영관)이 생산하고 있는 일부 PET필름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지난 달 4일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MOFTEC)는 도레이새한이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조정하면서 이날부터 일부 PET필름에 대한 관세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MOFTEC는 지난해 1월 4일부터 도레이새한의 화학제품에 대한 덤핑 재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최근 이 조사자료를 국무원 관세정책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반덤핑 관세조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세정책위는 MOFTEC의 관세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였으며 결국 도레이새한이 생산하고 있는 일부 PET필름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한편 PET필름은 과자봉지, 포장용지 등에 주로 사용되는 원재료로 중국정부는 지난 2000년 8월 한국산 PET필름에 대해 13~4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 중국 시장개발 가속화 조선 택배업 규제 완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와 약속보다 앞당겨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고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했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이날 외국 조선업체와 택배업체들의 중국 합작기업 지분보유 한도가 기존의 50%에서 75%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오는 2006년까지는 외국

조선업체들이 중국에서 1백%의 지분을 보유하는 완전 독립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당국자는 “중국은 WTO와 당초 합의한 일정보다 훨씬 빨리 서비스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 위해 개방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합작기업 지분 보유 한도를 50%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 광고회사들에 대해 오는 2005년까지 완전 독립법인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역시 지분 보유 한도가 50%인 외국계 보험사들도 2004년까지 독립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2005년부터는 지역별 영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 터키 알루미늄생산 최고치 기록 지난해 6만톤 이상 기록

터키의 유일한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Eti Holding사(www.etiholding.gov.tr)는 2002년 알루미늄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영기업인 동사는 명목 생산능력은 6만톤이나 2002년에는 6만2천5백1톤을 생산, 지난 1974년 생산을 개시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 생산실적은 6만1천7백30톤이다.

터키정부는 1990년대 들어 제련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생산능력을 11만톤으로 확충하려는



대략 3억불 가량의 설비투자를 계획하였으나 예산확보 문제로 몇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또한, 정부의 민영화추진 정책이 느린 속도로 진행된 것도 동사의 설비현대화 지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터키의 연간 수요량은 24만톤으로 Eti Holding사가 25%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사는 2001년도에 TL 15조(8.9백만불)의 수익을 올렸으나 2002년에는 전체 생산원가의 49%를 차지하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적자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가측면에서 유럽회사는 kWh당 2센트가 소요되나 동사는 kWh당 4센트를 에너지 비용으로 소모하고 있다.

동사는 2002년 11월 새롭게 탄생한 단독정부(AKP당)가 에너지 비용 절감, 민영화추진 박차 및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차원의 투자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일본 오지(王子)제지 중국 골판지 회사 설립**  
편골메이커 콘포(주) 10% 출자

오지(王子)제지가 중국에 골판지 생산거점을 신설한다. 지난 해 12월 江蘇省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기업을 목적으로 주로 중포장골판지를 공급한다.

오지(王子)의 1백% 자회사인 오지(王子)제지인터팩(주)가 현지 골판지 메이커에 출자하는 주주로부터 지분의 90%를 사들여 새롭게 「蘇

州王子包裝有限公司」를 설립한다. 편골(片段)메이커인 콘포(주)도 10% 출자한다.

새로운 회사의 자본금은 1억 6천만 엔으로 생산설비는 콜게이터 1기(중국제 16백mm 폭)와 플렉소인쇄기 등이다.

오지(王子)인터팩은 3층 골판지 「하이플에이스」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오지(王子)제지는 山東省青島市에 골판지 합병공장을 갖고 있어 중국에서는 골판지 생산거점은 이번 새로운 공장으로 2번째 장소이다.

**일본 소비자 54% 「식품표시**  
원재료명 상품 세밀하게 표시해야

소비자의 반수 이상이 식품의 원재료나 산지 등의 표시를 신용하지 않는 것이 인터넷 검색 서비스 대기업인 인포시크가 행한 식품에 관한 의식조사에서 밝혀졌다.

식품을 둘러싼 불상사가 그 배경에 있다고 보여진다.

식품 표시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예전에는 신뢰하였지만, 지금은 신뢰하지 않는다(49%)」와 「계속 신뢰하지 않는다(5%)」가 54%에 이르며, 「신뢰를 상실하였지만 지금은 신뢰하고 있다」고 말한 대답은 14%에 지나지 않았다.

신뢰할 수 있는 식품 메이커의 조건은, 「원재료 등 상품에 세밀하게 표시」가 49%로 최고였으며 「문의에 신속하게 대답해준다」가 47%, 「이물 혼입 등의 사고 방지 대책을 공개」가

44%였다.

「유명하다(34%)」, 「CM으로 자주 눈에 띄다(24%)」 등을 상회하며 소비자는 지명도보다도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지난 1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됐으며 20~59세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3백31인이 회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식품표시 후생노동성·농수성에 권고  
10개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조사**

일본 총무성은 식품표시에 관한 행정 평가·감사의 결과 신선식품 등에서 일본 농림 규격(JAS)법이나 식품위생법으로 의무화된 원재료나 원산지 등의 표시기준이 충분하게 지켜지지 않는 실태를 파악하고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에 개선을 권고했다.

총무성은 지난해 4월부터 2003년 1월에 걸쳐 전국의 백화점이나 슈퍼 등 5백48개 점포를 대상으로 식품표시가 적정한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판매되고 있던 신선식품 9만2천8백57점 중 11.5%(1만7백8점)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JAS법의 품질 표시 기준 위반 특히 개인경영 상점(백화점과 슈퍼를 제외한 전문점, 2백50점포)에서는 표시위반 비율이 많아 53.3%의 식품이 위반했다.

「유기 농산물」이라고 표시한 식품 중, 10.8%는 유기 농산물인 것을 증명하는 「유기 JAS 마크」가 붙어 있지 않았던 것도 밝혀졌다. 적절한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회답한 4백63점포 중 17.1%가 「표시 제도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아시아, 폐지수요 증가  
고지수입률 감소 원인도 작용**

올해 들어 아시아 폐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이 되면 폐지가격이 하락하리라고 예상돼 작년말에 구매량이 줄었으나 오히려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작년 12월에 구매를 많이 하지 않아 바이어측의 재고량이 적고, 이들이 구매를 서두르자 일부 품목에서는 약간의 품귀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그리고 금년의 구정연휴가 날짜상 예년보다 열흘정도 앞당겨져 바이어들이 좀더 일찍 시장에 참가해야하고 미국과 유럽의 곳은 날씨 때문에 고지수집률이 다소 줄어든 점도 수요상승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아시아 폐지의 강한 매수세는 구정연휴를 지나면서 점차 안정이 될 전망이다. 미국산 OCC의 가격은 US\$1백5~1백20/MT CIF에서 US\$1백15~1백25/MT CIF로, 유럽산 OCC는 US\$95~1백/MT CIF에서 US\$1백~1백5/MT CIF로 올랐다. 그러나 미국산 ONP는 US\$1백25~1백40/MT CIF, 유럽산 ONP는 US\$1백10~1백20/MT CIF로 여전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